

세계표준의 날 기념 세미나

표준과 시민, 사회적 기여

(Standards & Citizen, Contributing to Society)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표준정책 발전 방안 토론회



날짜 : 2007. 10. 15

장소 : 코엑스인터콘티넨탈서울
(비바체-HL층)

주 관



주 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표준제정



류 재 천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표준제정

1. 서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인 실생활환경에서 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안전성과 편리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대두된 “표준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생활의 주체인 소비자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은 것 같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위해 실생활 환경중의 일상용품들에 대한 표준 제정은, 정부당국, 각 분야의 전문가, 산업체 관계자는 물론 권위있는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폭 넓은 참여유도가 매우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많은 생활분야에서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중행사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더욱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 및 필요성은 물론 삶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등에 대한 표준제정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어, 표준제정뿐 아니라 실제 제정된 표준이 얼마나 실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유익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하며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본론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표준제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소비자나 전문가 그룹 모두에서 “공산품의 안전”과 “식품의약품에서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실생활 환경에서 우리의 건강과 보건과 안전성 확보에 피부에 와 닿는 가장 기대치가 큰 제품품질들의 “안전”에 대한 표준제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표준제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으로 제품 품질분야에서는 성능과 기능을 최우선으로, 공산품분야에서는 안전기준 및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대답한 점들을 고려해서 식품의약품분야에 대비해보면, 식품의약품 표준제정에서의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역시 성능과 기능을 고려한 안전성확보가 관건임을 유추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설문조사에서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분야의 표준제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비자그룹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사용시주의사항등의 제품표시부분의 표준제정이 가장 커다란 요구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품원료 및 성분 함량표시기준, 유해물질 관리, 원료의 안전성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 그룹의 답변에서는 원료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통기한 등의 제품표시, 신기술의 안전성 그리고 제품원료 및 성분 함량 표시기준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전문가그룹과 소비자사이의 Communication의 활성화 방안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3. 결론 및 제언

식품의약품의 안전성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말 할 수 없이 매우 크며, 더욱이 국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확보는 식중독 예방이나 국민 보건향상이라는 일상의 통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선진국수준의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철저한 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의 표준제정은 불량식품이나 식중독사건 등이 미치는 국민적인 관심과 반향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급히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며, 식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해 산업적으로 대량제조되어 판매되는 식품들은 물론이거니와 생활주변에서의 소규모로 상업화되는 식재료의 표준화나 음식조리과정의 표준화 등등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된다.

아울러 의약품류들에 대한 표준화는, 의약품의 전문성 때문에 용도나 용량, 부작용, 유통기한 등의 표시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나, 단지 행정당국의 법률적 요구에 의한 업체 입장에서의 단순한 행정적인 표시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표시방법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표준제정의 접근 등이 필요하리라 본다.

일반론적으로, 표준에 대한 소비자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인지도나 이해도, 활용도가 낮은 편이고 신뢰도는 보통이라는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표준제정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실제 제정된 표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와 필요성 및 활용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도 매우 중요하리라 본다. 나아가 홍보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

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표준제도 인증의 강화와 인증된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민적인 노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식품의약품분야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표준제정이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1. 피부에 와 닿는 표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 및 이의 홍보
2. 표준제정으로 인해 얻는 생활속의 많은 편리함과 장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3. 제정된 표준이 적용된 제품 등에 대한 인증과 법률제정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표준제도의 신뢰성 정착 등의 확신감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표준제정을 위한 실무 주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과 국제적인 표준 등등을 고려하여

1. 재원확보를 통한 재정지원과 법률제정 등의 주체는 정부당국이 맡고,
2. 표준제정의 실무적인 주체는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 이 되고, 표준제정의 소비자입장의 견해반영을 위한 소비자단체와 산업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산업계와 기타 관계자들의 일정한 역할은 필요하리라 보며
3. 표준제정의 장점과 편리함, 필요성, 신뢰성 등의 교육 및 홍보주체는 권위있는 소비자단체와 정부당국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어느 분야의 표준제정이 시급한가? 누가 주도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보다는, 실생활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성능과 기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제고를 위한 표준제정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표준제정을 통한 가치 창조의 길이므로 정부당국은 물론 이러한 각 주체들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조관계구축을 통해 차분하고 확실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적인 수준의 표준제정의 진행이 중요하리라 사료된다.